

르네 지라르의 미메시스(모방) 이론에 비판적 소고

유경동 *

【주제어】 르네 지라르, 미메시스(모방), 종교 폭력

【요약문】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모방(미메시스, mimesis)’이론은 신학계에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지라르의 ‘희생양(scapegoat)’ 개념은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에 대한 통찰력으로서 인간의 모방 욕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사를 통하여 구축된 인간 문명의 허구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으며, 유대-기독교의 평화주의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대한 영어권 학자들의 분석과 비판적 이론을 통하여 ‘미메시스’ 이론이 가진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관한 연구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첫째,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고, 이어 다양한 관점을 서구학자들의 이론을 통하여 검토하며, 둘째, 지라르의 관점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고, 그리고 셋째, 지라르의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이론에 대한 신학적 의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한국 학계에 소개된 지라르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그의 ‘희생양’ 연구에 대한 고찰과 비판이 소수 있으며, 그의 ‘미메시스’ 이론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은 신학적 관점에서 지라르 철학의 전반적 평가와 한계에 대한 서구권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라르 연구를 위한 철학과 신학의 간 학문적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이 논문의 한계는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을 중심으로 서구권 학자들의 관점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에 지라르 이론 전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임을 밝히며, 후속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I. 들어가는 말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모방(미메시스, mimesis)’ 이론은 신학계에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그의 ‘희생양(scapegoat)’ 개념은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에 대한 통찰력으로서 인간의 모방 욕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사를 통하여 구축된 인간 문명의 허구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으며, 유대-기독교의 평화주의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모색하고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대한 영어권 학자들의 분석과 비판적 이론을 통하여 ‘미메시스’ 이론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관한 연구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첫째,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고, 이어 다양한 관점을 서구학자들의 이론을 통하여 검토하며, 둘째, 지라르

의 관점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고, 그리고 셋째, 그의 이론에 대한 신학적인 의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한국 학계에 소개된 지라르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그의 ‘희생양’ 연구에 대한 고찰과 비판이 소수 있으며, 그의 ‘미메시스’ 이론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¹⁾ 따라서 이 논문은 신학적 관점에서 지라르 철학의 평가에 관한 서구권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지라르 연구를 위한 철학과 신학의 간 학문적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이 논문의 한계는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을 중심으로 서구권 학자들의 관점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에 지라르 이론 전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임을 밝히며, 후속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II. 르네 지라르의 미메시스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미메시스’ 이론을 구성하는 중요한 저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으며, 그것은 각각 *Mensonge romantique et verite romanesque (Deceit, Desire and the Novel: Self and Other in Literary Structure, 1961)*와 *La violence et le sacre (Violence and the Sacred, 1972)*, 그리고 *Des choses cachees depuis la fondation du monde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1978)*이다.²⁾

1) DBpia를 통하여 ‘르네 지라르’를 검색하였을 때 ‘종교학/신학’ 분야에 19개의 논문이 검색되며, 주로 ‘희생양’의 개념과 연관된 ‘성서 신학적’인 관점, 또는 ‘폭력’의 개념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있다.

URL=http://www.dbpia.co.kr.proxy.mtu.ac.kr:8080/search/topSearch?startCount=0&collection=ALL&range=A&searchField=ALL&sort=RANK&query=%EC%A7%80%EB%9D%BC%EB%A5%B4&srchOption=*&includeAr=false#none(2020년 10월 25일 최종 접속).

2) 지라르의 ‘미메시스(mimesis)’는 ‘모방’이라고 한국 학계에 일반적으로 번역되어 소개되

볼프강 펄래버(Wolfgang Palaver)의 분석에 따르면, 지라르의 최초 저서인 *Deceit, Desire and the Novel* (1961)은 실존주의적 문학 저작들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자율성이 아닌, 타자 의존적인 모방성이 유럽 역사 및 근대 전통에 내재해 있음을 밝혀낸다.³⁾ 그리고 두 번째 저서인 *Violence and the Sacred* (1972)에서 지라르는 자신의 ‘미메시스’ 이론을 인류학-문화 이론으로 확장한다고 보며, 특히 이 저서에서 지라르는 소위 희생양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세계 주요 종교의 여러 요소를 중심으로 이를 설명하는데, 유대-기독교적인 성서 해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펄래버는 설명한다.⁴⁾ 그리고 ‘미메시스’ 이론의 핵심으로서 세 번째 저서인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1978)에서 지라르는 자신의 문화-인류학적 ‘미메시스’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성서를 해석한다고 펄래버는 부연한다.⁵⁾

르네 지라르의 *Deceit, Desire and the Novel* (1961)에 나타나는 미메시스 이론의 요점을 간략하면, 욕망하는 주체와 대상이 되는 객체는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매개자를 통하여 삼각형의 관계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주체가 같은 대상을 욕망하는 다른 매개자의 욕망을 욕망하게 된다는 점이다.⁶⁾ 이렇게 되면 질투와 부러움이 모방의 삼각형 관계에서 작동하는데, 일반적으로 매개자의

고 있는데, 필자는 원어를 준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르네지라르의 이론을 소개하는 맥락에서는 ‘미메시스’로 그리고 그의 이론을 문맥에서 소개할 때는 ‘모방’이라고 설명한다. 참고로 이론의 기초를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저서들은 지라르의 저서들에 대한 소개와 순서에 대해서는 Wolfgang Palaver, *René Girard's Mimetic Theory*, trans. Gabriel Borrud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3), 8-14를 참고하였다. 지라르의 서적 제목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3) Wolfgang Palaver, *René Girard's Mimetic Theory*, 8-9.

4) 위의 책, 9.

5) 위의 책, 10.

6) René Girard, *Deceit, Desire, and The Novel: Self and Other in Literary Structure*, trans. Yvonne Freccero (Editions Bernard Grasset, 1961; The Johns Hopkins Press, 1965), 2.

질투에 자신의 질투가 투영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⁷⁾ 이때 매개자는 대상을 욕망하는 경쟁자가 되어 주체의 소유욕을 부추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⁸⁾ 아울러 주체는 매개자가 욕망하는 것에 실제 근거가 없는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⁹⁾ 이러한 “삼각형적 욕망은 대상을 변형시키는 욕망이다.”¹⁰⁾ 욕망은 바라는 대상에 투사되어 또 다른 욕망을 일종의 꿈처럼 추상적으로 만들어낸다.¹¹⁾ 이때 욕망은 자발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욕망은 자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객체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¹²⁾ 이와 같은 지라르의 미메시스 원리가 제시하는 내용은 삼각형적 욕망의 구조 안에서 주체나 대상 그리고 매개자의 경쟁적 구도가 형성되고, 주체와 매개자 사이의 본래적인 관계가 무너지고 상호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라르는 *Violence and the Sacred* (1972)에서 대상을 욕망하는 주체와 매개자 간의 경쟁 관계는 욕망하던 대상에서 대상을 취하려는 경쟁 때문에 폭력 자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발단은 단일의 대상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상에 대한 매개자의 욕망이 주체의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¹³⁾ 경쟁자의 대상에 대한 욕망은 주체로 하여금 대상을 욕망하게끔 하며, 이렇게 되면 주체가 본래 욕망하던 대상이 처음 대상으로부터 경쟁자로 바뀌게 된

7) 위의 책, 12.

8) 위의 책, 13-14.

9) 위의 책, 17.

10) 위의 책, 17.

11) 위의 책, 18.

12) 위의 책, 19. 르네 지라르는 객체의 영향에 의한 욕망보다는 자신 안에서 생성된 욕망이 더 강하다고 강조한다.

13) René Girard, *Violence and the Sacred* (Originally Published in Paris in 1972,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145.

다.¹⁴⁾ 문제는 인간은 대상의 소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가 한 없이 강화된다는 점이다.¹⁵⁾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이 “욕망은 매개자에 의하여 욕망된 대상으로 직접 향하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모방적(mimetic)”이라는 것이다.¹⁶⁾ 지라르는 이러한 모방적 욕망은 어린이에게나 성인에게 예외 없이 나타나며, 인간은 모방하는 대상을 향하여 서로 끊임없이 충돌하게 된다고 지적한다.¹⁷⁾ 이러한 모방 욕망에 대한 인간의 본성은 마치 “나를 모방하라”라고 암묵적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동시에 “나를 모방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을 취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는 존재와 같다고 강조한다.¹⁸⁾

이와 같은 모방적 욕망은 주체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은 매개자의 욕망이 자신에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일종의 ‘이중 맹검(double blind)’으로서 “모순적인 이중 의무론”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한다.¹⁹⁾ 지라르는 모방적 욕망이 폭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중 맹검’은 타인의 욕망이 자신에게 투영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 안에서 경쟁적인 욕망의 충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인간은 욕망하는 대상에 가까이 갈수록 욕망의 대상을 쟁취하기 위한 폭력을 정당화하여 결국 ‘폭력과 욕망’의 연결고리는 끊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다.²⁰⁾

14) 위의 책, 145.

15) 위의 책, 146.

16) 위의 책, 146.

17) 위의 책, 146.

18) 위의 책, 147.

19) 위의 책, 147-148. ‘이중 맹검’은 일종의 병리적 증상으로 인간관계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라르는 보고 있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 ‘이중 맹검’은 주체가 욕망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자가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라고 필자는 이해한다.

20) 위의 책, 148.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1978)에서 지라르는 욕망의 구조 안에는 “갈등, 경쟁, 그리고 전복”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²¹⁾ 욕망하는 인간에게 그 욕망을 쟁취하는 과정에 소위 성공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결국 경쟁을 통하여 얻으려는 욕망은 실망스럽게 실패로 끝나고, 종국적으로는 절망감에 혼돈에 빠지게 된다고 지라르는 설명한다.²²⁾ 지라르는 “욕망은 유행병이라기보다는 풍토병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유대-기독교의 경우는 욕망으로 말미암은 모방적 위기가 희생 제의를 통하여 완화되었다고 해석하며, 욕망은 역사적인 상황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²³⁾ 이런 맥락에서 지라르는 모방은 그 자체로 일종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마치 도박에서 돈을 잃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도박에 거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 안에 작동하는 욕망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한다.²⁴⁾ 왜냐하면, 욕망은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매개자의 욕망을 모방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려고 하여도 매개자가 욕망하는 모방적 모델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 결국 끊임없는 모방 욕망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지라르는 설명한다.²⁵⁾

지금까지 필자는 미메시스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라르의 저서 3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라르는 인간의 모방적 욕망이 종교를

21) René Girard,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rans. Stephen Bann and Michael Metteer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in 1978 by Editions Grasset & Fasquell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284.

22) 위의 책, 285.

23) 위의 책, 288.

24) 위의 책, 289.

25) 위의 책, 311. 지라르는 프로이트(Freud)도 모방 욕망과 같은 인간의 성향을 잘 파악하였지만, 소위 ‘죽음의 본능(death instinct)’과 문제에 국한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책, 311.

포함한 문화 인류학적으로 고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간은 자울과 타울의 경계선에서 타자적 욕망이 투영된 경쟁적 구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경쟁체제의 고리에 결국 갇히는 존재이며, 유대-기독교적 제의가 나름대로 폭력의 악순환을 완화하는 종교적 체재임을 지라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이러한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평가를 살펴보자.

III.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의 특징

르네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평가는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필자는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각각 ‘비폭력에 대한 신학적 상징성을 중시하는 견해’,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견해’, ‘근대화에 대한 비판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역동성을 중시하는 견해’ 등이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은 폭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비폭력적 상징을 중시하는 관점이라는 평가가 있다. 셸리 매튜스(Shelly Matthews)와 김슨(E. Leigh Gibson)은 종교와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공헌을 인정하는데, 매튜스 등은 지라르가 특히 제의적 종교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종교와 폭력은 서로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한 점을 중시하며, 기독교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종교와 문화가 희생양을 요구한다는 그의 ‘미메시스’ 이론은 종교 내적인 폭력성을 분석하는 데에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고 본다.²⁶⁾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을 통하여 폭력이 종교 및 사회, 문화적 기저에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찰스 벨링어(Charles K. Bellinger)는 “르네 지라르는 폭력은 한 사회가 자신이 받아들인 미메시스의 변동의 결과로서 어떠한 혼돈에 직면할 때,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단결을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한다.²⁷⁾ 벨링어의 분석에 따르면, 지라르는 근대성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성서 신학적 측면에서의 비평철학을 통해, 근대성이 인간에 대한 축복인 동시에 병리적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²⁸⁾ 벨링어는 지라르의 ‘미메시스’란 인간이 실존적으로 경험하거나 느끼는 결핍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며, 이렇게 결핍의 감정을 통해, 타자를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은 자아로 하여금 사회적 영역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모방하고자 하는 자아가 추구하는 사회라는 공간은 자신의 결핍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타자들이 이미 가진 권력이나 선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분석한다.²⁹⁾

벨링어에 따르면,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항상 도덕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타당한 형태는 아닐 수 있음을 지라르가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희생양이 사회적 단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면서도, 그것이 균중의 잘못된 관념에 의해 지배될 경우, 희생양은

26) Shelly Matthews and E. Leigh Gibson, “Introduction,” *Violence in the New Testament*, eds. Shelly Matthews and E. Leigh Gibson (NY and London: T&T Clark, 2005), 2-3.

27) Charles K. Bellinger, *The Genealogy of Violence: Reflections on Creation, Freedom, and Evil* (London and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4.

28) 위의 책, 10.

29) 위의 책, 74. 찰스 벨링어(Charles K. Bellinger)는 지라르의 ‘미메시스’이론에 근거한 희생양 메커니즘과 폭력의 문제에 대하여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를 비교한다. 비록 지라르 스스로 직접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희생양의 표본으로서 그리스도 개념을 강정하는 방식이나 그의 해석학적 의식은 키에르케고르와 상당히 유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군중의 심리학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기제로 전략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의 희생양을 통한 구원 개념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라르는 비판하며, 희생양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개인들의 실존적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더욱더 큰 사회적 선을 추구해야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⁰⁾

벨링어는 지라르에게 있어서 인간의 ‘미메시스’적 사회적 경향성에 대한 연구의 핵심은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종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하는데, 즉, 긍정적인 ‘미메시스’적 방향성을 통해 비폭력의 상징을 체화하고, 이를 공유하는 공동체 집단 간의 의사소통이 증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³¹⁾ 벨링어는 지라르의 미메시스 사상의 핵심은 ‘개인성의 실패(failure of individuality)’가 ‘미메시스’적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메시스 이론을 통하여 공동체의 조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³²⁾

둘째,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을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과 통합하는 점을 증시하는 견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펠래버의 설명에 따르면, *Les origines de la culture (Evolution and Conversion: Dialogues on the Origins of Culture, 2000)*에서 지라르는 다윈의 진화론과 ‘미메시스’ 이론을 통합하려고 한다고 분석한다.³³⁾ 같은 관점에서 스콧 카우델(Scott Cowdell)은 1990년대에 들어서 지라르는 인간 욕망의 모방성과 그에 대한 사회, 문화적 역동성에 대하여 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다윈주의적 진화론을 바탕으

30) 위의 책, 79.

31) 위의 책, 81.: 벨링어는 이러한 지라르의 사상과 용어가 많은 부분 키에르케고르의 용어와 교차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상징과 그를 통해 드러나는 군중의 비진리성, 그리고 추구되어야 할 진리성의 본질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32) 위의 책, 83.

33) Wolfgang Palaver, *René Girard's Mimetic Theory*, 13.

로 더욱 일반적이며 포괄적인 ‘미메시스’ 모델을 제안하였다고 분석하였다.³⁴⁾ 지라르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인간 병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던 기존의 결론을 넘어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과학적이며 일반적인 지평으로의 확장을 제안하였다고 카우텔은 평가하면서, 그런데도 ‘미메시스’적 욕망에 근거한 왜곡과 희생적 폭력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라르의 기본적 사상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카우텔은 강조한다.³⁵⁾

셋째,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을 근대화에 대한 비판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다. 스콧 카우텔(Scott Cowdell)에 따르면,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미메시스 이론은 서구 역사 및 근대 사회의 이분법적 도덕주의와 낭만주의적 개인주의 배경에 있는 인간적 동기에 대한 새로운 심리학적 분석을 기초로 하였으며, 또한 실존주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존재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실존적 갈망과 집단적 사고의 역동성을 살펴봄으로써 근대성의 역설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설명한다.³⁶⁾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에 근거한 폭력과 종교의 관계, 그리고 그 기저에 존재하는 ‘미메시스’적 욕망의 작용에 대한 연구는 서구 종교적 전통뿐만 아니라, 힌두교와 불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적 전통에 관한 연구로 확장된다고 카우텔은 설명한다.³⁷⁾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지라르는 주로 기독교 전통과 성서를 기반으로 어떻게 폭력의 상황에서 평화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희생양 개념으로 설명하였다고 카우텔은 설명하면서, 지라르의 희생양 개념의 핵심

34) Scott Cowdell, *René Girard and Secular Modernit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13), 5.

35) 위의 책, 5.

36) 위의 책, 3.

37) 위의 책, 4-5.

은 현재 존재하는 종교적 제도와 형식, 신화 및 금기 이면에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내재한다는 사상에 있다고 카우텔은 주장한다.³⁸⁾ 카우텔의 설명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 특히 9/11 테러라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지라르는 전쟁의 본질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근대 사회 역사의 방향에 대한 종말론적 주제에 집중하게 된다고 분석하는데, 서구 역사의 근대성은 헤겔적인 질적 발전과 역사적 진보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롤러 코스터(apocalyptic roller coaster)’를 타고 있으며, 이러한 롤러코스터적인 격변은 근대성의 결과로 지라르가 보았다고 카우텔은 설명한다.³⁹⁾

넷째,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은 종교의 ‘거룩성’이라는 본질이 폭력과 연결된다고 보며, 인간의 자연적 본능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요소들이 결합한 역동적 개념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존 게이저(John G. Gager)는 지라르의 해석학적 방법론을 신약 성서 해석에 적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라르가 상징하는 희생양 개념 그리고 ‘미메시스’적 욕망에 근거한 사회 유지 장치로서의 대리적 희생자의 표본이 된다고 보는데, 즉 모든 종교에는 성스러운 폭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성스러운 폭력을 중심으로 종교적 의례와 교리가 형성된다고 본다.⁴⁰⁾

크리스 플레밍(Christ Fleming)에 따르면, 초기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은 주로 미시적 관점에서 인간 상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며, 지라르에게 있어서 인간의 폭력성과 ‘미메시스’적 욕망에 대한

38) 위의 책, 4.

39) 위의 책, 5-6.

40) John G. Gager, with E. Leigh Gibson, “Violent Act and Violent Language in the Apostle Paul,” in *Violence in the New Testament*, eds. Shelly Matthews and E. Leigh Gibson (NY and London: T&T Clark, 2005), 13-14.

그의 심리학적 관심은 인간 개별적 관계에 근거한 이러한 심리학적 작용이 어떻게 보다 넓은 사회, 문화, 역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론화가 중요한 관심이 된다고 설명한다.⁴¹⁾

플레밍은 폭력성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문화와 문명을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에너지로 작용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지라르는 성스러움(sacred)에 대한 인식이 모든 사회적 구조에 있어서 내재되어 있다는 뒤르케임(Emil Durkheim)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는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 과정으로 보는 기능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지라르는 성스러움이 대리적 폭력 또는 희생양을 통한 폭력의 전가 등의 방식을 제안한다고 플레밍은 설명한다.⁴²⁾ 플레밍에 따르면, 지라르가 유대-기독교에 근거한 초자연적 환상(supernatural fantasy)에 집착한 이유는 철학과 인문학이 종교, 특히 서적 성찰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념에 근거한다고 강조한다.⁴³⁾

스콧 토마스(Scott Thomas)는 인간 욕망에 대한 심리학적, 인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비평 이론을 제시하는 지라르의 ‘미메시스’ 사상은 종교의 교리적 측면과 인간 현실 사이의 부조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은 종교성의 핵심, 곧 거룩성(the sacred)과 폭력을 이원화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폭력의 본질이 종교성의

41) Chris Fleming, *René Girard: Violence and Mimesis* (Cambridge, UK and Malden, MA: Polity Press, 2004), 38-40.

42) 위의 책, 67-68.: 플레밍은 지라르가 폭력성과 성스러움, 그리고 이에 근거한 사회적 질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라르에게 있어서, 사회적 질서 및 문화적 질서의 초월 사회적(extra-social), 초월적 기원은 실제로 대리적 폭력의 희생자(surrogate victim) [또는 희생양]이다. 다른 말로해서 성스러움이란 효과적으로 인간 상호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공격성을 변모시킴으로써 미메시스적 갈등 자체를 초월화하고, 이러한 [미메시스적 욕망을 보여주는] 인간의 성향을 신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갈등을 초월화한다.” 같은 책, 69.

43) 위의 책, 150.

핵심인 거룩성에 결부되어 있다고 평가한다.⁴⁴⁾

토마스는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은 서구 지적 전통에 근거하면서도 일반적인 문화이론으로 확장된다는 점에 있어서 독특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은] ... 사회적 관계들의 종교적 - 또는 더 넓게는 성스러운 - 측면을 탐구하는데, 이러한 종교적 특징은 문화와 종교, 그리고 거룩성의 근원에 폭력을 결부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 제도의 근원에도 폭력을 결부하여 [설명]한다.”고 부연한다.⁴⁵⁾ 토마스의 설명에 따르면,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의 핵심은 곧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은 상호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으로, 이러한 모방은 단지 외면적 행위에 대한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모방으로 자신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통해 학습된 욕망이며, 자연적이며 본능적 욕망과 문화와 사회적 산물로서 욕망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공통적으로 가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욕망은 개인성과 제도성, 그리고 사회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방성에 의해 형성되고 작용하는 욕망은 그 자체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문화(제도)적 관계 그리고 인간의 자연적 본성 사이의 역동성에 의해 재정의된다는 것이다.⁴⁶⁾

지금까지 필자는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이 가지는 나름 긍정적인 함의에 대하여 서구 이론가들의 해석을 소개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폭력에 대한 신학적 반성으로서 비폭력적 저항의 연대가 지라르에게 나타난다는 찰스 벨링어 등의 견해는 유대-기독교의 전통에서 종교의 역할이 증시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같은 제3 세계 신학의

44) Scott Thomas, “Culture, Religion and Violence: René Girard’s Mimetic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014), vol.43(1), 309-310.

45) 위의 책, 310.

46) 위의 책, 311-312.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라르의 이론을 근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스콧 카우텔의 해석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성스러운 폭력’으로서의 종교적 제의가 교리를 형성하고, 성서적 성찰을 지라르가 중시하였다는 플레밍의 지라르 해석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 다음에서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을 살펴보자.

IV. 르네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대한 비판

필자가 정리하여 보았을 때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대한 비판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다양한 종교적 관점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 종교 내적인 요소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며, 여성주의적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문제, 종교 자체의 세속화에 대한 해석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칫 정적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차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라르의 제의 연구에 대한 통찰력이 기독교 성서에 제한되어 간문화적인 방법론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요코 이리에 파올(Yoko Irie Fayolle)에 따르면,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근거한 종교의 내적 폭력 문제는 주로 기독교 성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이외의 다른 전통이나 문화에 있어서 과연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본다.⁴⁷⁾ 볼프강 펠라버의 설명에 따르면, 지라르는 *Le sacrifice* (Sacrifice, 2003)에서 유대-기독교의 성서가 아닌, 베다경을 통해 자신의 ‘미메시

스' 이론을 이론적으로 검증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지라르에 따르면] 고대 인도 종교에서도 [유대-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미메시스적 경쟁과 희생양 메커니즘의 흔적이 발견되는데, 특히 희생제사와 관련된 베다 경의 다양한 설명들이 그렇다. 베다 시기 마지막에 이르러 완성된 베단타 철학(Vedanta) - 여기에는 가장 위대한 힌두교 철학 저서인 우파니샤드(Upanishads)가 포함된다 -에서 보면, 성서적 계시와 거의 흡사하게, 고대의 희생제사를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⁴⁸⁾ 그러나 브라이언 콜린스(Brian Collins)는 지라르의 기독교 문헌과 전통 중심의 ‘미메시스’ 이론을 확장하여 분석한 힌두교 서사시에서 희생양은 외부자로서 설정되면서, 희생양의 희생적 죽음은 오히려 재앙의 결과를 초래하는 신화적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라르의 개념과 다르다고 지적한다.⁴⁹⁾

유진 웹(Eugene Webb)에 따르면, 지라르의 이론과 불교의 상관성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있다고 본다. 지라르가 지적하듯이, 서구 근대성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자아에 투영함으로써 모든 행위를 자아의 자발적, 자율적 본성으로 환원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모방하는데, 불교의 경우, 욕망에 대한 제어와 포기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라르의 이론과 불교의 공통점은 자아의 허상성에 대한 인식에 있다고 웹은 설명하면서, 지라르는 이러한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며, ‘미메시스’의 긍정적 방향성을 향한 메커니즘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반면, 불교는 욕망 자체를

47) Yoko Irie Fayolle, “A Reading of the Atomic Bombing of Nagasaki-Urakami with Nagai and Girard,” in *Apocalypse Deferred: Girard and Japan*, ed. Jeremiah L. Alberg (Norte Dame, IN: Norte Dame University Press, 2017), 67.

48) Wolfgang Palaver, *René Girard's Mimetic Theory*, 12-13.

49) Brian Collins, *The Head Beneath the Altar: Hindu Mythology and the Critique of Sacrifice*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4), 138.

부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웹은 지적한다.⁵⁰⁾

레오 르페뷰어(Leo D. Lefebure)에 따르면, 초기 지라르 사상에 있어서 불교는 기독교와는 달리 욕망에 대한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개인적 욕망을 제거함으로써,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추구한다고 지라르도 해석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그가 기독교 중심의 성서적 종교에서만 자신의 ‘미메시스’ 이론의 근거를 삼기 때문이라고 르페뷰어는 강조한다.⁵¹⁾ 그러나 르페뷰어는 지라르 자신이 불교와 자신의 ‘미메시스’ 이론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기본적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하는데, 예를 들어, 인간의 자율성의 허구성과 자율적 의식이 얼마나 타자를 모방하고, 타자에 의존하는 지에 대한 관점이 그렇다고 설명한다.⁵²⁾

둘째,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의 기반이 되는 ‘희생양’ 개념은 종교 철학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개념이 간과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파올로 부비오(Paolo Diego Bubbio)는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이 종교 철학적으로 적합한 주제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희생양의 상징적-문화적 의미는 종교적인 측면과 철학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괄하는데, 종교적 측면에서 지라르는 기독교의 성스러움에 대한 비신화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철학적 관점에서는 일종의 지적-희생적 형태로 설명하면서, 철학은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것으로 지라르는 이해한다고 부비오는 지적한다.⁵³⁾ 부비오는 이러한 지라

50) Eugene Webb, “Girard, Buddhism, and the Psychology of Desire,” *For René Girard: Essays in Friendship and in Truth*, eds. Sandor Goodhart, Jørgen Jørgensen, Tom Ryba, and James G. Williams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9), 149-152.

51) Leo D. Lefebure, “Mimesis, Violence, and Socially Engaged Buddhism: Overture to a Dialogue,” *Contagion* (Spring, 1996), vol.3, 121-123.

52) 위의 책, 126.

53) Paolo Diego Bubbio, *Intellectual Sacrifice and Other Mimetic Paradoxes* (East Lansing,

르의 사상은 희생제의와 그에 결부된 신비화의 의미론적 영역을 세속화-계시, 그리고 신비적-신화적 영역을 구체화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설명하며, 이렇게 종교와 철학에 대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지라르의 사상을 종교 철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라르가 종교와 철학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본질적 유사성 또는 연결성에 집중한다고 할 때, 그의 사상은 철저하게 종교 철학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비오는 주장한다.⁵⁴⁾

부비오는 기독교 중심의 ‘미메시스’ 이론을 통한 종교-폭력 연결성을 구성하는 지라르의 사상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 즉 지라르가 종교와 폭력의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에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비판하는데, 이러한 비판은 주로 ‘미메시스’ 이론이 합리주의 형태 또는 철학적 합리성을 죄의 형태로 이해하고, 기독교적인 틀에서 인간의 궁극적 실존과 신의 실존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낙관하는 입장을 설명하는 것의 불가능을 지라르가 주장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며, 부비오는 지라르가 이성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신앙의 측면 또한 제거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지라르가 기독교에 있어서 환원론적 방식을 취한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⁵⁵⁾

부비오는 비록 지라르가 기독교 성서를 중심으로 희생양 개념과 ‘미메시스’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kenosis)의 측면이 간과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즉, 그리스도는 지라르의 개념상, 무고한 희생양으로서 ‘미메시스’적 폭력적 갈등을 봉합하는 중요한 종교적, 상징적 기능을 하지만, 이러한 희생양은 그 자체로

Michigan: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8), 21.

54) 위의 책, 21.

55) 위의 책, 83-84; 92n2.

비자발적인 타자화의 결과일 뿐, 기독교의 그리스도와 같은 신의 자발적 자기 비움과는 동일시 될 수 없는데, 부비오는 지라르가 탈근대성을 표방하면서도 이성 중심의 근대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신화화 및 비신화화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초월성에 대한 신학적 사고를 비신화적인 논리와 이성의 언어로 환원한다고 비판한다.⁵⁶⁾

조직신학자인 테드 피터스(Ted Peters) 또한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이론이 아니라, 일반적 측면에서 인간 본성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해석학적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하며, 현실 세계에 팽배한 폭력적 사건과 성향들에 대한 지라르의 통찰은 탁월하지만, 지라르 자신은 종교적 제의의 형태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희생양 개념에 집중하면서도, 정작 종교 내적인 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거나 부족하다고 주장한다.⁵⁷⁾

셋째,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은 욕망에 근거한 보편적 폭력의 불가피성을 설정하는데 주효하지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별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으며, 프로이드의 이론도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리처드 골선(Richard J. Golsan)에 따르면, 지라르의 폭력에 대한 사상은 그가 설정한 ‘미메시스’ 이론에 제기되는 근본적 의문, 즉, 모든 인간이 타자를 모방하는 행위가 경쟁과 갈등으로 귀결된다면, 결국 인류는 불가피하게 끊임없는 경쟁과 폭력 상태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에서 과연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⁵⁸⁾

56) 위의 책, 110-111.

57) Ted Peters, “Religious Sacrifice, Social Scapegoating, and Self-justification,” in *Mimetic Theory and World Religions*, eds. Wolfgang Palaver and Richard Schenk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8), 367-369.

58) Richard J. Golsan, *René Girard and Myth: An Introduction* (NY: Routledge, 2002), 29.

골선에 따르면, 지라르는 ‘미메시스’적 욕망에 근거한 인간의 보편적 폭력의 불가피성은 경쟁 또는 갈등하는 공동체 사이를 증재하기 위해 합리화할 만한 희생양을 설정함으로써 피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희생양으로 설정되는 개인 또는 집단은 사실상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갈등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핵심으로 간주되거나 또는 갈등의 핵심을 무마하기 위한 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모든 적대적 감정이나 에너지의 희생양이 되고, 결국 종교적, 인종적 소수집단이 특히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골선은 설명한다.⁵⁹⁾

골선에 따르면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 및 폭력이론에 대한 비평은 주로 지라르가 반근대주의적 입장과 인간 욕망에 대한 도해적 개념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제기되었지만, 여성주의(feminism)적 입장에서, 지라르가 상정하는 ‘미메시스’ 욕망은 인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여성을 타자화의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⁶⁰⁾ 또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대한 보편적 적용은 너무 도해적(schematic)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욕망의 형태를 전부 적용하기 어렵다는 구체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⁶¹⁾

넷째,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은 종교도 역사 속에서 세속화의 과정을 통하여 변화하여 왔다는 입장을 간과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는

59) 위의 책, 32-34.

60) 위의 책, 113. 지라르의 이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평과 관련하여, Sarah Kofman, “The Narcissistic Woman: Freud and Girard,” *Diacritics* 10(3), (Fall, 1980), 36-45; Toril Moi, “The Missing Mother: The Oedipal Rivalries of René Girard,” *Diacritics* 12(1) (Summer, 1982), 21-31. 참고. Sarah Kofmanrhk Toril Moi의 논문 언급은 Richard Golsan의 책에서 인용함, 원문 각주 8 참고.

61) 위의 책, 115-116: 지라르 이론에 대한 심리학적 비평에 대해서는, Robert G. Cohn, “Desire: Direct and Imitative,” *Philosophy Today* (Winter, 1989), 319 참고. 원문 각주 13 참고.

다. 오토 칼슈어(Otto Kallscheuer)는 르네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은 종교적 비평(religious critique)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며, 특히 종교의 영적(spiritual) 측면에 집중한다고 설명하면서, 비록 지라르 자신은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양을 살해하는 것이 경험적이며 사실상의 근간이 된다는 의견을 보이지만, 칼슈어는 이러한 지라르의 관점은 ‘범우주적 도발(universalistic provocation)’이라고 비판한다.⁶²⁾ 칼슈어는 세속화의 가속은 ‘미메시스’적 도식에 근거해 볼 때, 일종의 인간 문명의 종말로 귀결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입장은 세속화가 일종의 기독교 또는 종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분법적인 도식으로 빠지게 되는데, 반면 기독교 또는 종교 자체의 제도화 및 규격화라는 세속화적 과정을 통하여 미메시스적 폭력의 악순환을 나름 극복하여 왔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고 지적한다.⁶³⁾

다섯째, 지라르의 ‘미메시스’는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정적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받는다. 마사 라이네케(Martha Reineke)는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이 인간의 감각적 경험(sensory experience)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라르가 ‘미메시스’ 욕망 자체가 육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했지만, 욕망의 육체성은 언제나 종교적 또는 영적 회심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았기에 지라르의 이론은 긍정적인 ‘미메시스’적 욕망의 가능성이 배제되었다고 라이네케는 주장한다.⁶⁴⁾

62) Otto Kallscheuer, “Girard and Religion in the Age of Secularization,” Wolfgang Palaver and Richard Schenk eds., *Mimetic Theory and World Religions*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8), 111-112.

63) 위의 책, 117-118; 129-130.

64) Martha Reineke, “Girard and the Feminist Critique of Religion: Intimate Mediation in Kristeva and Girard,” in *Mimetic Theory and World Religions*, eds. Wolfgang Palaver

라이네케에 따르면, 지라르가 보는 ‘미메시스’적 욕망을 통해 발현되는 폭력의 결말은 항상 완전한 파괴 아니면 종교적, 특히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 둘 중의 하나로 귀결된다고 보며,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긍정적인 ‘미메시스’의 결과로 정의된다고 보는데, 기독교적인 영적 구원의 형태 또는 은혜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인간 자체의 육체적 욕망으로 결부되는 ‘미메시스’적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이며, 이는 결국 기독교적 정적주의(Christian quietism)로 이어진다고 라이네케는 해석한다.⁶⁵⁾ 라이네케는 지라르가 부정적 ‘미메시스’에 의한 파괴로 점철되는 세계와 긍정적 ‘미메시스’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세계, 이 둘을 나란히 위치하면서 동시에 양자 간 관계성을 상징하지 않음으로써, 인간 실존의 근본적 약점, 즉 선과 악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간 실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⁶⁶⁾

살펴본 바와 같이 지라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희생제의의 내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이 다소 모호하다는 견해들이 지배적이며, 특히 여성이나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의 문제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폭력의 요인들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폭력과 희생에 대한 종교 자체의 세속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특히 영적 구원의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자칫 정적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유의미하다고 본다.

and Richard Schenk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8), 164.
65) 위의 책, 166-167.

66) 위의 책, 167-168.

V.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에 대하여 서구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역사 전반을 거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지라르의 분석은 ‘미네시스적 욕망’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학계에 인문학적 각성을 주도하였다고 본다. 삼각형적 욕망의 경쟁체제를 통하여 반복되는 폭력과 희생의 굴레는 결코 인류사회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도 르네 지라르의 미메시스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간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적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희생은 삼각형적 욕망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다. 기독교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변증될 수 있는 신중심적 삼위일체 윤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자발적인 자기 비움이 전제되어 있다. 하나님의 신성 계약은 인류에 대한 언약이며,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신다. 이런 맥락에서 지라르의 미메시스에는 제의 내적인 측면에서 작동하는 죄의 문제와 이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언자적 변혁과 사회 개혁이라는 기독교의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 본성에 흐르는 모방적 욕망에 대한 기독교의 영적 각성은 오히려 사회를 선도하고, 공적 영역의 책임을 강조하여 온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고, 제자도의 삶을 추구하여야 할 소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라르의 운명론적 모방 욕망의 결과는 자칫 끊임없는 폭력의 순환고리를 벗어나기 위한 초월적 세계에 대한 요청이 강화되며, 이는

자연적으로 정적주의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원론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라이네커의 지적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이원론적 경향을 보인 어거스틴의 전통도 있지만, 반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을 통하여 덕론이 제기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인간의 양심과 이성의 회복을 중시하여 전통이 있다. 인간 개체성에 내재하는 신적 형상을 통하여 인간은 감각적 경험의 세계를 제외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영적 훈련을 통하여 자신과 사회를 변혁하여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지라르의 미메시스 이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지적 통찰력의 정신적 산물임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비주의적 전통과 수도원주의와 같은 다양한 기독교 전통의 목소리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 육체의 본성을 훈련하고 덕을 신장하는 기독교 영성의 전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 관점을 지지하는 이론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라르의 이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비판, 즉 모더니즘에 대한 인간 이성 중심적 사고와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식민지 전쟁, 그리고 현대 석유 에너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끊임없는 에너지 전쟁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인간의 본성에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이기심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권력의 의지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를 지라르의 모방이론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라르의 이론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벌어지는 미메시스적 경쟁과 폭력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만, 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풍토병”이라는 일종의 병리적 현상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토지와 바다의 소유를 놓고 전쟁을 벌여 왔으며, 이제는 우주 공간을 놓고 쟁투하고 있는데, 이는 인류 사

회에 만연한 전염병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맥락에서 지라르의 이론은 지구자원을 정의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3 세계의 식량부족은 값싼 품팔이를 통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수많은 난민을 바다와 지구 곳곳을 떠돌게 하며, 세계열강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한 거창한(?) 세계화는 인간 정신의 세계화가 아니라 자국의 상품 세계화에 혈안이 되고 있다. 세계 곳곳의 난개발과 자연의 파괴는 고스란히 생태계의 파괴로 그리고 결국 인간의 죽음이라는 종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라르의 이론은 지구자원을 놓고 쟁투하는 현 국제사회의 현실 앞에서 모방 욕망이라는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생명과 자원의 공유와 분배를 정의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지라르의 미메시스가 제시하는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에 귀기울여야 함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신학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재구성 또는 변증하면서, 하나님의 자발적 케노시스와 덕의 윤리에 대한 강조, 그리고 생태신학적 관점이 함께 보충되면 인문 신학의 발전에도 더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Bellinger, Charles K. *The Genealogy of Violence: Reflections on Creation, Freedom, and Evil*. London and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Bubbio, Paolo Diego. *Intellectual Sacrifice and Other Mimetic Paradoxes*. East Lansing, Michigan: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8.
- Cowdell, Scott. *René Girard and Secular Modernit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13.
- Cohn, Robert G. "Desire: Direct and Imitative," *Philosophy Today* (Winter, 1989).
- Collins, Brian. *The Head Beneath the Altar: Hindu Mythology and the Critique of Sacrifice*.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4.
- Fayolle, Yoko Irie. "A Reading of the Atomic Bombing of Nagasaki-Urakami with Nagai and Girard," In *Apocalypse Deferred: Girard and Japan*, edited by Jeremiah L. Alberg. Norte Dame, IN: Norte Dame University Press, 2017.
- Fleming, Chris. *René Girard: Violence and Mimesis*. Cambridge, UK and Malden, MA: Polity Press, 2004.
- Gager, John G. and Gibson, E. Leigh. "Violent Act and Violent Language in the Apostle Paul," In *Violence in the New Testament*, edited by Shelly Matthews and E. Leigh Gibson. NY and London: T&T Clark, 2005.
- Golsan, Richard J. *René Girard and Myth: An Introduction*. NY: Routledge, 2002.
- Goodhart, Sandor and Jørgensen, Jørgen, Tom Ryba, and James G. Williams. *For René Girard: Essays in Friendship and in Truth*.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9.
- Kallscheuer, Otto. "Girard and Religion in the Age of Secularization." In *Mimetic Theory and World Religions*, edited by Wolfgang Palaver and Richard Schenk.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8.
- Lefebure, Leo D. "Mimesis, Violence, and Socially Engaged Buddhism: Overture to a Dialogo." *Contagion* (Spring, 1996), Vol.3.
- Matthews, Shelly and Gibson, E. Leig. "Introduction." In *Violence in the New*

- Testament*, edited by Shelly Matthews and E. Leigh Gibson. NY and London: T&T Clark, 2005.
- Palaver, Wolfgang. *René Girard's Mimetic Theory*. Translated by Gabriel Borrud.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3.
- Peters, Ted. "Religious Sacrifice, Social Scapegoating, and Self-justification." In *Mimetic Theory and World Religions*, edited by Wolfgang Palaver and Richard Schenk.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8.
- Reineke, Martha. "Girard and the Feminist Critique of Religion: Intimate Mediation in Kristeva and Girard." In *Mimetic Theory and World Religions*, edited by Wolfgang Palaver and Richard Schenk.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11.
- Scott, Thoma. "Culture, Religion and Violence: René Girard's Mimetic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2014), Vol.43(1).
- Webb, Eugene. "Girard, Buddhism, and the Psychology of Desire." In *For René Girard: Essays in Friendship and in Truth*, edited by Sandor Goodhart, Jørgen Jørgensen, Tom Ryba, and James G. Williams. East Lansing, Mich.: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9.

Abstract

**Religion and Violence:
A Critical Study on René Girard's Mimetic Theory**

Kyoung-dong Yoo, Ph. D.

Department of Theology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e theory of Rene Girard on the correlation of religion and violence created ripples in the theological circles. Significantly, Girard's concept of 'scapegoat' is the philosophical insight regarding the Old Testament's sacrificial system that commented on the issue of the mimetic desire of humans and indicts the fabrications of the human civilization constructed throughout history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Judeo-Christian pacifism. The researcher proposes to examine the limits of the 'mimesis' theory through the English speaking scholars' analysis and the critical theories on it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will approach the study of mimesis theory from three perspectives. First, an overview of the 'mimesis' theory of Girard will be made, and secondly, the viewpoints and the limits of his 'mimesis' theory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ideas of the western scholars. Thirdly, the alternative to Girard's view will be briefly proposed from the theological perspective.

Most of the few precedent kinds of research concerning Girard in the Korean Academia are mostly centered on the reflections and the critique of his 'scapegoat'

research, and there is no specific research on his 'mimesis' theory yet. Therefore, this paper is expected to assist the interdisciplinary dialogue between philosophy and religion in the study of Girard's theories by examining the precedent researches of the limits of Girard's philosophy in the west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Key Words】

René Girard, Religious Violence, Mimetic Theory, Scapegoat, Surrogate Victim